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Chol Sik Chong, Publisher
S. S. Kim, Editor

VOL.9 NO.1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January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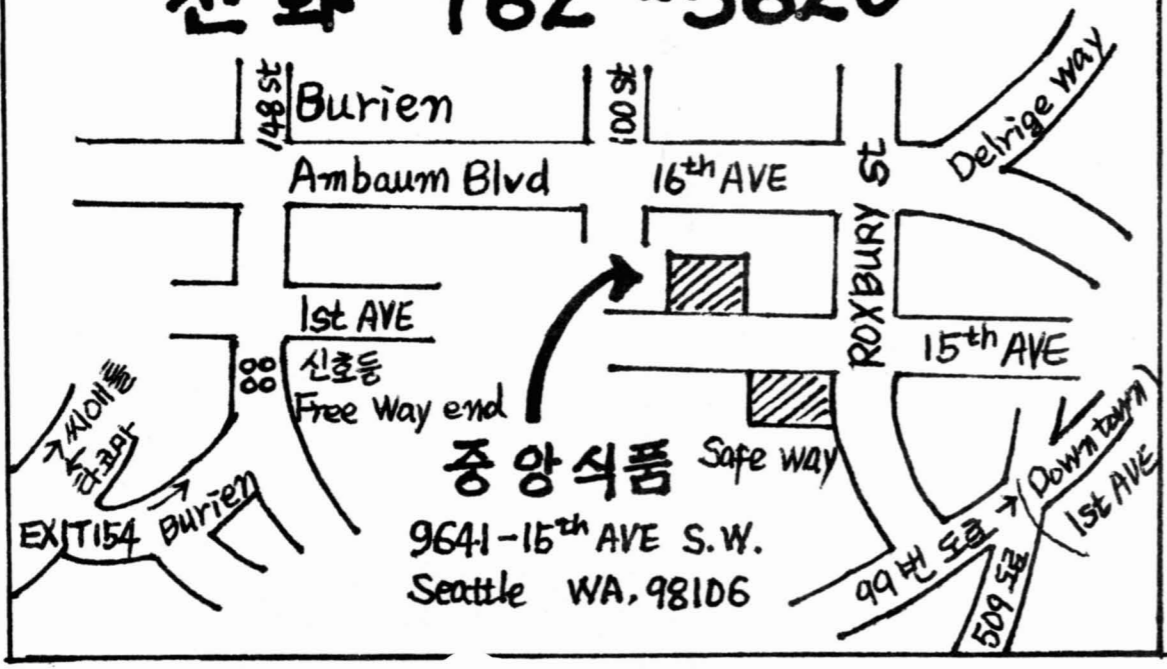
씨애틀 S.W. 지역
화이트 센터 중심가에 위치한

중앙 식품

* 친절한 서비스. 저렴한 가격
한국인의 情.....,
우리는 이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식품 갈비 연삼 웅담
한국 생선 곱창 녹용 경육고
선물용품 기타 생필품 일체 직수입

* 영업시간: 평일 10AM ~ 8PM
일요일 12AM ~ 6PM
전화 762-5620



KBC 안방 영화회 안내



친애하는 재미교포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방에 영화관을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사 문명은 인간 생활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사회로 만들어주고 있는 오늘날 KBC 안방 영화회는 특수장치로 녹화한 고국의 인기있는 영화, 연속극, 쇼프로등과 이민 생활에 필요한 생활영어 및 상식, 그리고 뉴스등을 모아 비데오 카세트 테이프를 제작하여 매주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에 배달하여 매주 안방 영화관을 위해 여러분은 본 회에서 알선한 비데오 카세트 녹음기를 구입하시면 현재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일반 텔레비전을 통하여 본 KBC 안방 영화회가 대여하는 비데오 카세트 테이프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년간)

1) 비데오 카세트 녹음기는 KBC 안방 영화회 테이프 이용은 물론 일반 TV 프로를 여러분 자신이 녹화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기계이며 여러분이 좋아하는 프로를 녹화 하였다가 다시 시청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고귀한 여러분의 안방 장식품이 될 것입니다.

2) 안방 영화관을 위한 비데오 카세트 테이프는 매주마다 내용이 다른 6시간씩을 KBC 안방 영화회 회원에게는 무료로 대여해 드립니다. (송료와 수수료만 내시면됨)

3) 비데오 카세트 녹음기의 가격은 본회 회원이 되고자하는 분에 한하여 특별가격 1980년도 \$995.00, 1979년도 \$845.00 으로 봉사 합니다

KBC 안방 영화회
(206) 747-7234
4017 162nd Ave S. E. Bellevue Wa 98006

FARMER'S INSURANCE GROUP



정 문 언
GOOD STUDENT DISCOUNTS - LOW RATES FOR CAREFUL DRIVERS
NON-SMOKERS SAVE ON YOUR AUTO, FIRE AND LIFE INSURANCE
AUTO • LIFE
BOAT • TRUCK • FIRE
HOME OWNERS & COMMERCIAL
454-6503
555 116th N.E. Suite 206 Bellevue, WA 98004

김종구 회계 사무소

세금, 회계 및 사업에 관한 원이면 다년간 경험있는 "공인세무사" 저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약력: (미국) • 현 NEW ENGLAND FISH CO.의 CHIEF TAX ACCOUNTANT - 4년.
• 재무성 - IRS 의 "공인세무사" 시험 합격.
(한국) • 한국 "공인회계사 (CPA)" - 8년.
• 충주비도 및 전태화학 (제4비로) CO - 10년.
• 고려대학교 상대 졸업.

- 업무: • 회계 장부 일체
• 중소기업의 각종세무보고
• 개인 INCOME TAX 보고
• 세무, 경영 및 투자 상담.

절대 가일보 보장 과 신속, 정확한 서비스로
담가 봉사

사무소: KIM CHONG KOO TAX SERVICE
13051 37TH AVE. N.E.
SEATTLE, WA 98125
(집) (206) 367-0655 오후 5시 이후 및 주말
(사무실) (206) 281-1420

신년사



한인회 이사장 엄명보

희망에 찬 1980년 새해를 맞이하여 고포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곳 씨애틀-워싱턴주 한인회가 창립된지도 벌써 14년째를 맞이하여 그 동안 한인사회의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며 고포의 인구도 많이 증가되어 씨애틀을 중심으로 근교에 약 2만여명의 고포가 거주하고 있다는 소식이입니다.

언어와 풍습이 다른 이역땅에서 생활의 벽전을 닦기 위해 밤낮으로 바쁜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않아, 이제는 생활기반들이 잡혀가고 있으며, 우리의 전통문화 민족의 끈기있는 노력을 미국사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줄기찬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망의 80년 대의 첫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보다 더 새로운 자세와 감으로 사회활동에 임해야 할것 같습니다. 한인회의 신임 임원들은 한인사회를 위해서 앞장고, 친화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대 고포관계에 심심과 실천적인 봉사활동이 있을것으로 크게 기대되는 바입니다. 또한 고포 여러분들께서도 더많은 이해와 협조로서 한인회에 귀력과 심원을 보내셔서 고포들의 단합된 힘을 미국사회에 과시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인사회의 고포간에 존경과 신뢰를 통해 서로 이끌어 주는 풍조가 이루어 질때 개인은 물론 한인사회가 더욱 발전을 가져 올것 이고 고포들이 필요를 느끼는 한인회가 될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내외 어진이 아무런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고통으로 넘겨서 최대한의 값 어치를 얻도록 해야겠습니다.

변 해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전개될때는 반드시 이에 따른 변화가 있게 마련이고 흐르는 물결이 있는가하면 파도치는 물결과 거꾸러 거스르는 물결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물은 반드시 아래로 흐르듯이 우리의 노력은 아무도 막지 못할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새 시대에 알맞는 가치관 행동 양식 및 행동 체계가 어찌가지면에서 정립되도록 고포 여러분이 합심하여 금년을 성과있는 한해가 되도록 한다면 우리들에게 균형적인 발전이 오고 나아가서는 한인사회가 더욱 굳건한 토대를 구축할수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자라고 있는 우리들의 2세 3세들에게 훌륭한 전통을 남겨주는 길과도 될것입니다.

존경하는 고포 여러분 !
희망의 80년대를 여는 첫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계획을 세워 자신감을 가지고 인내와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주저하지 마시고 아울러 좀더 발전적인 한인사회를 건설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1980년도

한인회관 건립기금 기부자 명단	한인회비 납부자 명단
정철식(회장) \$1,000.00	정철식 \$15.00
양백승(부회장) \$500.00	양백승 \$15.00
노순업(부회장) \$500.00	노순업 \$15.00
이동규(총무) \$100.00	이동규 \$15.00
이광술(재무) \$100.00	이광술 \$15.00
김영민(교육) \$100.00	김광택 \$15.00
김광택(청년) \$100.00	이덕기 \$15.00
이덕기(체육) \$100.00	장부관 \$15.00
장부관(홍보) \$100.00	현리장 \$15.00
현리장(봉사) \$100.00	김두영 \$15.00
서병권(편집) \$100.00	조찬영 \$10.00
윤병서(섭외) \$100.00	이성구 \$15.00
오준걸(건이사장) \$200.00	최승의 \$15.00
김두영(해병동지회회장) \$101.00	이동립 \$50.00
기능사협회 \$500.00	김정정 \$15.00
조기두 \$20.00	송기만 \$15.00
서두수 \$200.00	김기영 \$15.00
조준범 \$35.00	김태진 \$15.00
	조준범 \$15.00
	심상규 \$15.00
	김상목 \$15.00
	서병권 \$15.00

1979년도

아리랑 파티 기부자 명단	아리랑 파티 물품 기부자 명단
총영사관 \$500.00	한국가게-쌀 50 파운드 2자루
마포마 한인회 \$100.00	중앙식품-인형 1개, 목과1개
로트라(Kotra) \$100.00	사진틀 1개
정문언보험 \$100.00	101 Auto-텔레비전 1대
권용성 \$100.00	김재호-쌀 50 파운드 1자루
김정자 \$50.00	심상현-쌀 50 파운드 1자루
이동립 \$100.00	김철준 보험-Bulova 손목시계
김현중 \$75.00	박창식 내과-Dinner 접시 1 Set
김간난 \$30.00	홍동규-텔레비전 1대
	China Gate-식권 10명분
	해병대 동우회-시계 3개
	서광선-Microwave Oven 1개
	윤학당 미권도장-쌀 50 파운드 1자루
	이혜진-Bulova 시계 1개
	황수철 부동산-쌀 50 파운드 2자루
	기능사협회-쌀 50 파운드 2자루
	이규영-시계 1개

한인회 소식

80년도 씨애틀 한인회장 총영사관을 방문

본한인회에서는 80년도 회장, 총무, 이사장께서 총영사관을 방문 고포들의 공동이익과 상호 친선을 도모하고 이세대의 교육문제, 본국 이주자와 박주 이주자들의 직장문제에 대해서 씨애틀 총영사관은 여러 모로 후원하기로 확답받고 특히 이세대의 자녀교육(한글학교)에는 적극적으로 자금면으로나 자료면에서 도우기로 약속, 한글학교 재정으로 3,000불 후원을 확답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본국에 Summer Vacation 동안 우수학생을 파견하여 본국정부의 후원에 모국방문 여부와 우수 학생 선발하여 총영사관에서 표창장 수여기로 건의하였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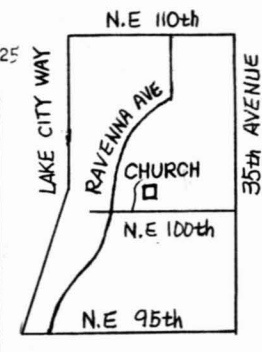
본한인회에서는 1월 26일 이사 임원 공동회의를 열고

80년도 사업계획 토의와 건립위원회, 사무실 이전문제 등 이날 회의의 주요 의제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인회 주최 고양 강좌

인법 택스 및 기업 경영에 관한 세무고양 강좌를 회계사 김중구 씨를 초청하여 오는 2월 16일(토요일) 오후 6시 한인회 주최로 열리게 됩니다. 장소는 한인 장로 교회(구.시택교회)
주소: 2728 N.E. 100ST Seattle Wash 98125

한인회 봉사부 직원들은 고포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문제, 사업문제, 건강상담 기타 등등 어르신들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 김형성 교수님 씨애틀에

우리 한국사람에게 널리 알려진 연세대학 김형성 박사(철학교수)님께서 돌아오는 2월 5일에 씨애틀에 오신다. 이는 씨애틀 한인 연합 감리 교회에서 초청한것인데 본 교회에서는 김교수님을 모시고 2월 8일(금)부터 2월 10일(일)까지 4번에 걸쳐 특별 대접회를 가지게 된다. 교회 담임목사로 있는 김종원 박사는 이번 기회에 기독교에 대해서 본명이 알고싶어 하시는 씨애틀, 마포마 지역에 사시는 고포 어르신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2월 8일 P.M 7:30
9일 P.M 7:30
10일 A.M 11:00
P.M 7:30

장소: 씨애틀 한인 연합 감리 교회
주소: 1415 N.E. 43rd ST Seattle Wa 98105
전화: 교회 사무실-226-7864
교회-632-5163

DO YOU NEED A LAWYER?

전 워싱턴주 도시사의 변호사를 비롯 5명의 기독교인 변호사로 구성된 ESTEP & LI 법률 사무소에서 2년전 워싱턴 법과대학을 졸업한 MR. BROWN 변호사께서 Partner 가 되어 여러분의 법률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특히 통역이 필요하신 한인교포를 위해서는 현재 씨애틀 국민학교에서 교사로서 일하시고 있는 Mrs Brown(은부원)께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주소: MR. RON BROWN
2110 Exchange Building
2nd Ave & Marion
Tel: 682-0565(Office)
821-4465(Home)

마포마 한인회 소식

마포마 한인회에서는 "구정 잔치" 한인의 밤을 마련하여 많은 고포 들의 참석을 바라고 있습니다.
입시: 2월 9일(토요일) 오후 7시
장소: 육군부대 NCO Club (연년도 장소와 동일)
초청가수: 박상규, 이상림, 송대관, 김아정, 현미
회비: \$10.00 예매: \$9.00

세락소 개업

고포 박춘석씨는 세락소(드라이 브리닝)를 인수하여 확장 개업중, 고포 고객에게는 얼마 서비스해드린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소: 9001 Delridge way S.W. Seattle Wash 98106
전화: 767-6270

김목공소



신·중축 또는 개축공사. 지붕수리공사
마포마 콩크리토 등 특별 영가 봉사 무료 견적
카페르
본인은 한국과 미국에서 20년의 건축공사 경험이 있으며 본 김목공소의 특징은 고포에게는 무료 견적 영가 봉사 하였습니다.
주소: 3822 191 st ST S.W. Lynnwood Wa 98036
전화: 777-8019 (낮-밤)
763-9190 (낮)

이러다 보면 확정된 새해 결산안이 지금은 몇분이 될런지 의문스럽군요. 물론 한민회를 위해서 무보수이다 즉까지 먼저 먹으면서 수고 해온 결과가 마치 한민회를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것을 보면 이 모든것은 교민여러분의 불협조도 아니고, 현재지변도 아니요. 도둑이 든것도 아니고. 어느누구의 부정사실이였을까요? 아니면 관리 부족일까요? 저로서는 교민여러분의 무관심 상태에서 기금을 내놓고도 간섭이나 건전한 충고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 되웁니다. 이 모든것을 분석하여 다시 한번 용기를 가져 우선 전원원칙에서 솔선수범 해서 기탁한 기금으로 첫발을 시작하여서 교민여러분의 헌신 협조해 주실것을 기대 하오며 이 회에 전 교민 여러분께 호소 하고픈 용정으로 이 한민회가 없어서는 안됨을 표현하려도 없이 그저 논의 드릴뿐입니다. 우선 약 20일동안 한민회 내각과 재정과 사무실 관리상태를 최장이라 전 원원이 살펴볼수록 좀더 갖추어야 할일들이 있기에 역대 소려해야 할것은 소려해서라도 사무실에 일체 비치 하여 추세에 향지 근기와 장소가 되도록 보존할 계획입니다. 이에도 많은 충고 향지 부탁드리고 싶웁니다. 그리고 아래 저가 교민여러분께 공개 해 드릴 몇가지 계획을 요약해 보겠읍니다. 이 계획은 연말 총회시 교민여러분께 승찬 받으실것을 명심 하고 충실히 이행 하겠읍니다.

- ① 재무 관계 사업 계획서 작성 (예산 작성 근거가 없어 결산과 차질 우려 이해바랍니다)
 - ② 한민회 각종 기금 감부과 지출상태를 매 회보때마다 재산사항과 함께 공개.
 - ③ 재정관계 (재무원칙) 업무수행 사무실 비쳐 (교민여러분께서 향지 명함 하시고 지적 할수있도록)
 - ④ 역대 한민회장이자 원원진 한민회 변명을 위해 가끔 남부등 헌신 작양도 강권한사.
 - ⑤ 14년동안 한민회를 위해 감부한 일체 기금 명단 총괄 정리 유지보존후 공개.
 - ⑥ 건축기금 확보 최선 대책. (건축위원회 또는 건축부 재발족)
 - ⑦ 여러 명어로 결산보고서 작성 하던 제정을 늘이고 한국말로 쉽게 분석 공개.
- 이 외에도 많은 활동이 있을것 같습니다. 교민여러분께서 많은 충고 기다리겠습니다. 옛말에 호랑이를 잡으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결국 조그만 되 한파리 못잡는다는 속언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보수가 없고 이 바쁜 1인 생활일자리도 한민회를 위해 충책을 팔은 이상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며 위험마리 못잡는나, 호랑이를 잡는다는 관순히 말씀 드려서 연말 총회시에 얼마나 사활을 쥘는나 한민회를 위해 열과가 남겼는나 가 결정 되겠조. 저의 소견 일지는 모르오나 열의가 있는 사람에게 맡겨주시고 또 한민회 원원인 너희들이 무엇을 하느냐고 비판 하시느니 보다 내가 한민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협조 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옵고... 한민회비와 각종기금이야가 기껏 15° 정도 애서는 데 어떤분은 재산의 한부분이라도 살아 가시는것처럼 생각 하시면서도 생명을 소중하고 건강을 중시는 "갑배"와 "순"은 순식간에 15°이 그것도 기분 좋게 팔려 버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15센트 우표를 붙여서 한민회 사무실까지 한민 기금을 우송해 주시는 분까지 계시니 이 생각의 차이는 너무나 큰것같아 전 앞으로 이 생각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향지 어느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교민여러분께 호소하고 협조를 바라겠읍니다. 내민족과 내형제 내형제 결국은 나를 나의 자식을 위함이되는 직접적인 관계가 언젠가 꼭있으리라 믿어지는 우리 한민회의 발전은 꼭필요함을 다시 한번 논의 하고저 하오며 향지 시간 나시는데로 저의 집으로나 한민회 사무실로 많은 충고와 헌신 발전에 관한 의견을 부탁드리오면서 두서 없는 글문을 용납 하시옵고 세계에 우리 은 교민 가내 마다 만사형통 바라오며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 하오며 끝맺겠습니다.

1980년 1월
최정원 씨야를 한민회 재무 부장 이 광 숙

와싱턴주 운전자 지침서 수정 및 추가 부분
편집자주 : 1979 년말 와싱턴 주정부 면허국에서 발간한 최신 운전자 지침서의 내용중 7부 수정 삭제 또는 추가된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고민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신속히 알려드리기 위하여 이번호에 변경된 부분만 발췌 번역하여 발표 합니다. 이번에 수정된 내용은 소형차량과 최종운전에 관한것이 글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와싱턴 주정부에서는 글 운전사 지침서 한글판의 수정본을 발간하여 각 시험장에 배포할 계획이타 합니다. 수정본이 나올때까지 과거 한글판 지침서를 가지신분들께서는 여기에 실린 변경부분을 참조하시어 시험준비에 사용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979년 개정판 한글 번역 수정 및 추가 부분)
 페이지 번호는 한글판 와싱턴주 운전자 지침서의 페이지를 말함
P3 오늘날 칩말 대응 교통수단이 늘 어가고 있을때에 우리 모두가 도로법규를 알아야할 필요성이 특히 큼니다. 요즘은 에너지 문제를 대처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터사이클" "모터페드" "자전거" 및 기타 이와 비슷한 운송수단을 사용하는데 점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 차량도 제과기 공용도로를 이용할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사항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에 따르는 운전기술을 알아야 하겠읍니다.

(P14) **운전 연습 허가증** (위에서 7째쪽부터 수정)
 운전연습 허가증 발급 수수료는 3불50전이며 발급된 허가증은 1년간 유효하다. 이 허가증은 1차에 한하여 재 발급될수 있다. 그러나 운전 연습자가 자기의 운전능력을 향상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있다고 인정할때 면허국은 세번째 운전연습 허가증을 발급 시킬수 있다.

운전연습 허가증은 적어도 5년, 5년 이상의 운전경험을 가지고있는 정규 운전면허소지자가 연습자의 옆에 함께하고 있을때에 한하여만 그 사용이 유효하다.
 모터 사이클 운전연습 허가증을 얻고저하는 사람은 정규 와싱턴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한다. 모터사이클 운전 연습 허가증 고부수수료는 3불50전이며 발급된 허가증은 1년간 유효하다.
 모터사이클 운전연습자는 자기가 연습하는 모터사이클에 사람을 태울수 없다. 모터사이클 연습은 정규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모터 사이클 운전허가를 가지고 있으며 최소 5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가진 사람의 직접 감독하에서만 할수 있다. 정규 운전면허에 특별허가가 요구되는 버스, 트럭 등에 대해서도 운전연습 허가증을 받을수 있다. 이 허가증 고부수수료도 3불50전이며 발급된 허가증은 90일동안 유효하다. 연습자는 연습하는 차량의 운전석 옆에 해당 차종 운전 특별 허가를 받은 정규 운전면허 소지자를 동석하여 지도를 받아야한다. 트럭 및 버스 운전자 지침서는 면허국에서 얻을수 있다.

① **면허 자격 자격 사유에서**
 P16, N03 삭제
 N04 → N03이 됨
 P19 ① **작성 운전에서** "무시 되어도 좋을 때 → 작용 되지 않도록 주의" (수정)

다른차 뒤따라 가기 (P22)
 이륜차량(두 바퀴로 움직이는 차량)의 뒤를 따라갈때도 또한 보통 때 보다 넓은 간격을 유지해야한다. 이륜차량은 보통차량보다 더 빨리 가속, 회전, 정지, 할수 있기 때문이다.

② 교외 (시골) 운전 (P26)
 많은 사고가 나는 사람은 접근하거나 없을지나갈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자동차의 혼(경적)을 울리거나 엔진소리가 너무르면 많이 놀래어 차가 앞쪽하는 차선으로 뛰어들어갈수도 있기 때문이다.

③ 차량의 장비 (P42)
 겨울... 모든 차량의 왼쪽 밖에 겨울이 달려있어야한다. 이외에도 또한개의 겨울이 차량내부 운전석 앞부분 중간쯤이나 또는 오른쪽 밖에 부착되어있어야한다. 겨울은 차량의 배후를 적어도 200피트(609미터) 거리를 운전자에게 보이게 해주는 곳에 달려 있어야함

④ 특별 차량 (P43)
 비록 당신이 자전거, 모페드, 모터사이클 또는 모터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과 같은 특별차량을 운전할 생각이 없더라도 당신은 책임있는 운전자로서 이륜차량에 대하여 특장구비요건이 무엇인가를 알아야하며 또한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정규 차량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의 태도를 취하여야한다

⑤ 추가 (P44)
모페드 (1979년 9월 1일 부칙 유효)
 소형 모터 및 페달로 추진되는 오토 또는 3륜 차량을 모페드 라한다. 이러한 차량의 모터는 50평방센티미터 또는 2마력 이하로 제한되며 평지에서 시속 30마일 이상의 속력으로 차량을 추진시킬수 없는것이 타야한다. 이외에도 구비요건으로서 차바퀴의 지름이 최소 16인치 이상이 되어야함과 휠 베이스(앞뒤 바퀴 차축간의 거리)가 최소 38인치 이상이 되어야한다는 사항이 포함된다. 모페드 도 모터 트릭본 사이클 이나 모터 사이클에 요구되는것과 동일한 공용도로 운행비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특수 차량을 모페드 차종으로 분류하는것은 와싱턴주 장비심사위원회 (State Commission on Equipment) 의 결정에 따른다.
 모페드 운전자는 최소 16세 이상이어야하며 유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한다. 모페드 운전자는 특별시험을 치거나 특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모페드를 사용하려면 모터 트릭본 사이클 이나 모터 사이클 외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량면허를 받아야 한다. 모페드는 전면적으로 교통규제를 받고있는 접근제한 하이웨이 보행자 도로, 자전거 도로, 오솔길, 자전거용도로, 승마로 많이 다니는 길 또는 등산 또는 산책길 같은곳에서는 할수 없다.

모페드는 부피가 작으며 속도가 낮기 때문에 운전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법에 따라 양방 1차선도로(오고 가는 길이 각각 1개 본인 도로)에서 뒤에 5대 이상의 차를 밀리게 하는 것은 위법이다.

모터 트릭본 싸이클
소형 모터싸이클 모터 스쿠터 또는 5마력이하의 모터에 의하여 추진되는 오토차량을 모터 트릭본 싸이클이라 한다. 이 차량을 공용도로에서 사용할려면 정규 모터 싸이클에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운전자는 정규 운전면허증에 모터싸이클 또는 모터 트릭본 싸이클 운전 특별허가를 배서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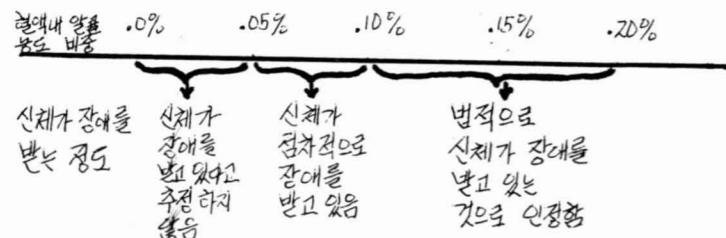
이와 같은 특별허가를 받으면 모터 싸이클 운전에 요구되는 것과 비슷한 상식 및 실기 시험 등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차량은 부피가 작고 속도가 낮기 때문에 이 차량의 운전자와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모두 함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법에 따라 양방 1차선도로에서 뒤에 5대 이상의 차를 밀리게 하는 것은 위법이다.

원천과 기축 (P 53) ND G 수권
인목시케이팅 락 (최악에 만드는 음토, 일반적으로 알콜음료 주술) 또는 마약에 의한 도취상태에서 운전하거나 또는 차량을 직접 다루는 일.

알콜 및 기타 약물 <술 또는 약>

↓
알콜 과 운전자 (P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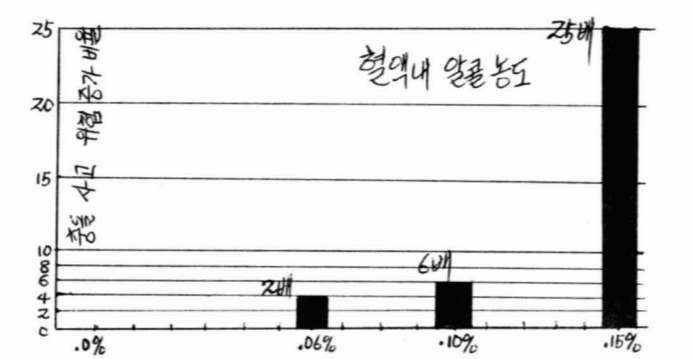
치명적 차량사고 전체의 약 절반은 알콜과 관계되어 발생한다. 알콜은 중추신경조직을 억압하여 뇌와 척추의 활동을 느리게 만드는 약물이다. 알콜은 마신양에 비례하여 신체 반응 임으키는 시간을 지연시킨다. 블랙드 알콜 본센트레이션(약자로 B.A.C 즉 혈액내 알콜농도)은 어떤 일정 순간에 혈액속에 들어있는 알콜양을 말한다. 와싱톤주에서는 혈액내 알콜농도가 0.10% 이상인 사람은 법적으로 알콜에 취한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만약 알콜농도가 0.05% 내지 0.10% 일 경우에는 취중 상태유무가 다른 증거와 겹치시켜 고역 될수 있다.



사람의 몸은 1시간에 약 1온스 정도의 비율로 알콜을 제거시킨다.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는 비율은 비교적 일정한 속도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만약 체중이 150 파운드인 사람이 공복 상태에서 1시간내에 술 5잔을 마셨다면 그 사람은 0.10%의 혈액내 알콜농도를 가지고 있어 법적으로 취한 상태에 있게 된다. 이 사람의 혈액내 알콜 농도가 0.05%로 내려가려면 3시간 이상이 걸리게 될 것이다.

우리들에게 널리 상식처럼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술에 취해 있을 때 산물로 사위를 한다든가, 볼펜카피를 마신다든가 동 내를 한바퀴 켜다 든가 또는 그의 여력까지 소위 요법을 쓴다 해서 술이 깨는 것도 아니며 또한 술 깨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다. 취중에서 벗어나 많은 상책도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시간뿐이다.

자동차 사고를 낼 잠재적 위험성은 술을 마신 정도에 비례하여 급격히 증가한다. 광범위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충돌사고 위험성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



운전을 해야 될 때는 술을 마시지 마라

복시 동의법
복시 동의법이란 내가 공용도로상에서 차량을 운전할 때 나의 혈액속에 알콜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결정하는 호흡검사에 응하겠다고 이미 승낙하였음을 뜻하는 법이다. 호흡검사는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드라이브하고 있거나 실제 신체적으로 본트를 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을 때 경찰관이 이를 요구할수 있다. 그 사람이 의식 불명상태에 있지 않은 한 혈액검사는 호흡검사로 이루어 진다.

이 경우 경찰관은 해당운전자를 우선 체포한후에 그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어야 하며 호흡검사에 불응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를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 해당운전자가 호흡검사 받기를 거절하면 그의 정규 차량운전면허는 6개월간 정지되며 직장통근면허도 얻을수 없게 된다 이와같이 복시 동의법은 교통법규에 관련되어 체포된후 무죄 또는 유죄의 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항상 유효하다.

알콜과 약물
운전자가 처음으로 차량을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드라이브 했거나 또는 신체적으로 본트를 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최소 1일 내지 최대 1년의 징역형 구금을 받는다. 이외에도 \$500 이내 벌금이 부과된다. 1일동안 감옥에 갇히는 형은 위법적이며 정지 또는 언기 될수 없다. 단 판사가 만약 해당피고인이 감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유죄 또는 정신안정상태에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할 때는 이에서 제외될수 있음본이다. 이외에 판사가 재량권을 행사하지않는 한 유죄판결을 받은 운전자는 30일 이내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는다.

미래의 80년대 한인회 살림을 막고서

고민 여러분? 새해 환영 하십니까?
본인은 80년도 한인회 살림을 꾸려갈 재정을 맡은 "리 광술"입니다.
지난해 연말 총회 이후 신임 회장으로 부터 본 총책을 맡고서 한인족 한결족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본 한인회를 위해 과년 무엇을 계획해야 할것이며 무엇 남겨 놓아야 할것인가에 대해 반발 고성 하던중에 새해를 맞이 하였습니다.
어떤 14년이란 역사를 지닌 한인회를 위해 희생하신 선배님들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이에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 해주신 우리 모든 고민 여러분께도 더욱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비록 크게 상처진 살림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의지 할수 있고 번영을 위해 기반이 조력 되었음에 한결 감복스러움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본직의 의무를 위해 최선을 다 할것을 고민 여러분께 과장하옵니다. 오늘날까지 고민 여러분께서 한인회를 위해 협조해 주시고 충고 해주신 성의 계속 분발 하셔서 지도해 주사옵고 우리 한인족의 긍지를 살려 후세에 물려줄 무엇 보다도 중대한 새 한인회의 조직을 더욱 빛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한결이로 뭉쳐 "한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관속함과 같이 하나에서 부터, 1 센터에서 부터 차근 차근히 모아서 뜻있게 쓰고 야끼어서 무엇이 후세에 남길 큰 힘을 길러서 과민족에 선두가 될수 있는 보람찬 후대를 파라는 소망합니다.
이제 저의 뜻으로는 예년보다 좀더 과민향식의 재정을 운영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해 재무 결산서와 년중 자출서를 종합해 간단히 평가 해 보자면 고민 여러분께서 협조 해주신 각종 기금의 차출은 거의 90%가 접대비나 사무회비, 체육회 각종 회비로 끝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각종 행사가 고민 향토간 친선의 목적이긴 하지만 이보다도 인간이 살아 가는 데는 의. 의. 주. 가 꼭 필요 하와서외 먼저 우리가 사 할수 파크 땅에서 모두가 교국을 그리며 외롭게 살아가면서 그래도 시간 가는대로 서로 만나 회포를 풀어볼수 있는 장소인 조그만 회관이라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 게임을 하는데 손보 접대를 하는등 후세 교유도 하는 여러가지 행사와 사업이 실시 됨이 우리 한인자유의 큰 의지를 이 파크 땅에 뿌리 박고 또 후세 영원히 번영 되게 할수 가 생각합니다. 지난 한인회 임원진에서 80년 우리의 목표는 "한인회관 건설"이다 큰 공은 결성을 했었습니다. 저야 향이 될현자는 모르으나 우리 개인 의무와 같은 할아버지 할머시 그리고 나의 친자식 같은 수많은 고민이,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진 한인회관에서 보람을 기대 할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이 될까나 기쁘어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14대 한인회장을 맡을때까지 적립된 건축기금은 원리금 할해야 겨우 만불"에 저할 정도면 놀라 심분 할것요. 여생을 해보라면 아마 그간 한인 기금에서 마신 손값 만 계산해도 건축 기금 몇백이 될것을 추상 합니다. 이제 우리 몇가 좀더 서로 자각해서 우선 새해 임원진부터 보라 이상을 갖고 장래를 위한 "한인회가 되길" 몇배 노력 하며 또한 고민 여러분께서 "응원에 들릴지는 모르" 아힘을 느낄수오면 예년보다 좀더 협조 해 주실것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의를 살피며 망서리지 않고 승선수법이 앞장수 있다면 안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선 금방 80년대에는 예년과 달리 전임원진에서 합심단체가 되며 모든 분자 기금을 먼저 기탁하고서 여러분께 협조를 얻기로 결관 했었습니다. 사실전국 전 재우관계 인사상회에서 모든권 포기 상회에 처했다가 과시한번 창설 하는 의미에서 아지 재생 하는 의미에서 청동 같은 각오를 계획사와 함께 과감 해 보았읍니다. 인우시 쇼크를 본는게 되었다면 우리 한인회 역사 14년에 이월 되는 (한인 운영기금)이월액이 \$350°° 에 79년 미회자중 분입해준 현금 \$500°° 합이 \$850°° (감사 이전 은행. 감사후 정확할것은 2월중에 공개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각처에서 79년도 미지불금 소위 "빚" 의 청구서가 오를(1/6) 현재 까지 온것이 \$200°°

공지사항

공고

보건의사회공고 제 31호

약사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80년도
약사정기 신고를 아택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한다.

1979년 11월 28일.

보건의사회 장관

1. 신고기간- 1980.1.1. - 1980.1.31
2. 신고자- 1979.12.31. 현재 대한민국 약사면허 취득자 전원
3. 신고방법- 신고외무자는 1980. 1.1. 현재의 상황을 조정의 신고서 양식(1매)에 의거 국내거주자는 현재거주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장, 국방부소속자는 현 육.해 공군 외무관 해외거주자는 거주지 관할 공관장을 경유하여 보건의사회 장관에게 신고함
4. 신고서 용지 배부
신고서 용지는 관할 시.군.구.보건소 육.해.공군 외무관실.해외공관에서 배부함.
5. 이 신고자에 대한 항정조치
위 신고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약사자격을 정지처분함

이영주 치과외사 에드몬드에서 개업
지난 3년동안 미 육군 군의관으로 근무해왔던 이영주씨가 9월 부터 새해를 북쪽 에드몬드 에 있는 Stevens Dental Center(치과 전문 병원)에 유일한 마이너티 치과외사로 개업하고 환자를 보기 시작했다.
이영주씨는 10여년전에 도미 이곳 와싱턴대학에서 이학석사학위를 얻고 치과공부를 계속, 1976년에 동대학의 School of Dentistry (치과대학)로부터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DDS 학위를 얻었다.
이어 미 연방 및 와싱턴주 치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후 그동안 군의관으로 충분한 실무경험을 쌓은후 개업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이영주씨의 진료소가 있는 Stevens Dental Center 는 그동안 6명의 백인외사만으로 운영되어왔던 최신시설의 의료기관으로 북서애들- 에드몬드 지역에서는 제일큰 치과전문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병원에 이영주씨가 전례없이 유일한 한국인 마이너티 외사로 가입하여 우수한 시설을 사용하면서 독립적으로 환자를 진료할수 있게 된것은 한인외사가 부족한 이곳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다행한 일이다.
치과진료비가 엄청나게 비싼 미국에서 치료비, 보험신청절차의 어려움 더욱이 미국인외사들과의 언어소통문제도 고민하는 고포들을 위하여 최대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이영주씨는 개업소감을 말한다. 영어가 불편하신분 또한 구강위생문제도 고민하시는 분은 항상 문의에 응하겠다고 한다.

공수동지회 인사말

고포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먼저, 여러분께 새해를 맞이하여 온 가정위에 희망찬 1980년도의 행운이 영원히 함께 하시길 하나님께 빕니다.
금년 우리들은 작은 힘이지만 우리들의 자신과 내 이웃과 우리고포사회에 도움이 되어보겠다는 긍지와 포부를 갖고 "공수동지회"를 창립하였음을 존경하시는 여러분께 알립니다. 여러분들의 넓으신 사랑과 사랑으로써 많은 지도와 편담을 부탁드리며 인사말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워싱턴주 공수동지회 회원 임동



개업안내 말씀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아택주소에서 2월 1일 부터 치과 진료소를 열고 여러분들의 구강위생상담(플리) 제작 및 일반치과진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고포 여러분의 많은 성원 있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진료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화요일-토요일)

진료장소 : STEVENS DENTAL CENTER
20728 76th Ave W.
Edmonds, Wa 98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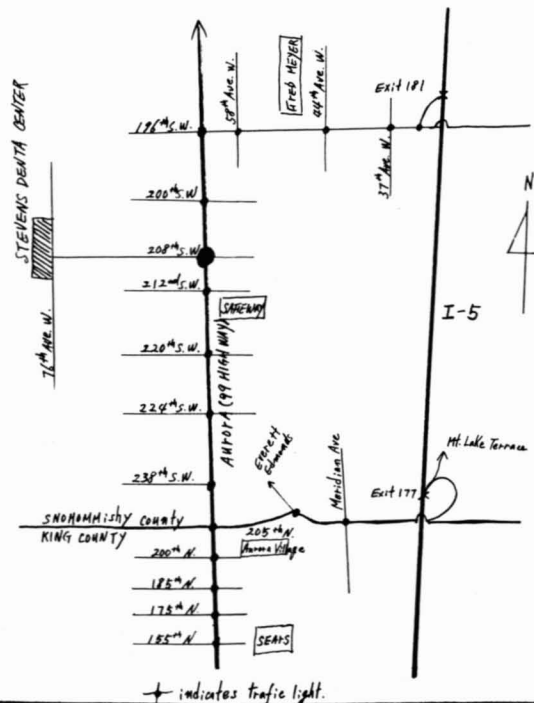
전화 : 775-3456 (진료소)

775-0575 (주야 24시간 긴급통화선)

542-8868 (자택)

치과외사 이영주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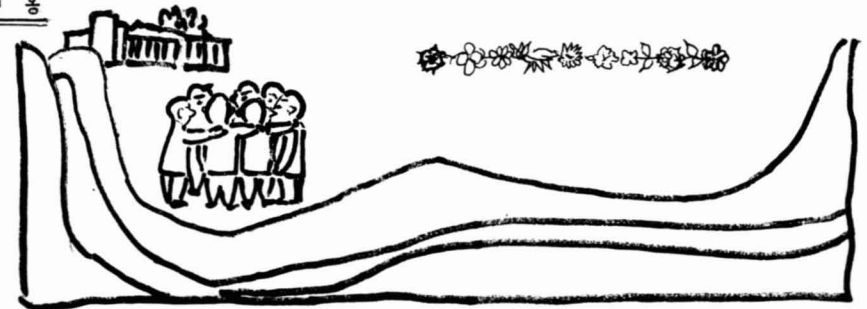
약도



습관성 교통법규 위반자법

습관성 교통법규 위반자는 5년 기간동안 20건의 무빙 비리(백미오션) (차가 움직이는 동안에 교통위반하는 것)을 범했거나 다음중 3가지 이상 법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자를 말한다.
즉 최종 운전(약자로 DWI), 부주의 운전, 맹소니 운전(다른차량이나 사람 또는 기물을 받고 도망가는 것) 과실치사 운전, 또는 면허 취소 중 운전이 이에 해당된다.
주정부 면허국은 이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향후 5년동안 와싱턴 주에서 차량을 운전할 특권을 박탈하는 명령을 발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직장통근면허를 주지 않는다.

번역자 박건홍



물건을 살때 보증금과 현금

4문 ▶ 나는 지난달에 디너 테이블을 한셋트 사기로 했는데 총액이 1,200불 되는 물건으로 사기전 보증금으로 100불을 지불하고 물건이 도착된 다음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전화가 오기를 현금 1,100불을 지불하지 않으면 물건을 배당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가구점 이야기가 나와 브레이크 나트기 때문에 현금이나 은행 보증 수표를 가져와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그렇게 딱딱한 가구점과는 상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먼저 가구점에 보증금으로 내돈을 돌려달라고 말하고 다른 가구점에서 구입하기를 바랍니다. 만일 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않으면 물건을 배당하여 달라고 하십시오. 물건이 도착하면 파손된 곳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면 잔금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집짓는 도중 건축업자 파산 당해

4문 ▶ 우리는 림플어 반돈으로 집을 한채 짓기로 했습니다. 건축비로 약 10만불 드는데 계약금으로 1만불을 지불 했습니다. 짓기 시작해서 벽과 지붕이 다 되었고 뒷집만 남았습니다. 건축이 중단되어 알아보니 그 회사가 재정난으로 파산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건축업자를 통해서 집을 완성할수 있는지 먼저 낸 1만불을 되 찾을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귀하는 그 건물을 다른 업자에게 완성시킬수 없습니다. 그 집이 완성되어 집 동기가 귀하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기

석두수 박사님 파주로 이전

본한인회에서는 오랫동안 이곳 고포 사회의 발전과 후백양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석두수 박사님께 한인회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증정 하였습니다. 파주로 떠나시는 박사님께 축복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때문에 소유주기 못 됩니다. 업자는 은행의 돈을 빌어 지은 것이니 땅과 물건이 모두 은행 담보로 들어가 있으므로 은행이 먼저 대부분의 돈을 회수하게 되기 때문에 당신의 계약금은 담보가 없는 계약이므로 받아 남수가 없습니다.

바이어 바란스 조절은

4문 ▶ 바이어를 얼마전에 사서 부착시켰는데 새 바이어의 바란스를 맞추었는데 나중 물건을 바이어의 바란스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답) 바이어는 새 바이어도 바란스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휘발유 소모가 적게되고 둘째로 바이어의 마모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않으면 바이어가 이상하게 닳아서 새것이든 헌것이든 부착시킬때는 바란스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가스 스프레이식 그라지에서 메카닉이 사용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약 6,000리얼여섯 1만마일 때마다 바이어의 평평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집을 사서 세를 놓는데, 세금은

4문 ▶ 저희들은 얼마전에 살던 집을 두고 또 다른 집을 샀습니다. 만일 살던 집을 세 주고 월세를 받으면 세금에 대하여는 어떤 한지요. 또 세를 받지 않고 친척에게 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그 집에 들어가는 몸게이지 부어나가는 돈 가운데 돈이자로 지불하는 만큼 세금에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수입을 위해서 세를 줄 경우 수입만큼 세금을 내야하고, 세를 받지않고 친척에게 그냥 빌려주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민족의 총화전진을 위해(1980년 1월 1일)
 의논, 양보, 타협은 단결의 길이요
 본쟁, 대립, 투쟁의 길은 본립의 길이요
 희망의 길이이다.

박 암

입찌기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실때 인간에게 부여해주신 천성은 인간의 동질성 즉 사회성이었다.

이런 인간의 동질성 사회성을 표현하는데 있어 5천년전 그 옛날에 우 리단군 국조께서는 이를 홍익 인간 사상으로 3천년전 중국의 공자는 인(仁)의 사상으로 석가는 대자대비의 사상으로 2천년전 예수는 사랑의 사상으로 표현하셨는데 그 표현은 달라도 인간의 사회성을 의미함은 다 동일하다. 이런 사랑의 성격이 이 세상에서 삼자면 나쁜 자는 살수 없으니 내가 살기위해서는 반드시 나밖에 또 나와 똑같은 남이있어 서로의 유무를 상충하고 서로의 장단을 조절하는 사회성 즉 상호부조의 관계가 절대로 필요하다.

1. 이 인간의 사회성에 의해 조직된 최소 한도의 집단이 곧 가정이고 이 가정이 여러개 모여서된 조직이 곧 사회이고 이 사회가 여러개 모여서된 조직이 곧 나라이고 나라가 여러개 모여서 구성된것이 곧 세계다. 사람치고 가정의 일원아닌 사람없고 사회의 일원아닌 사람없고 국민의 일원 아닌 사람 없다.

이로보아서 내가 있고 남이 있는곳에는 반드시 집단이 있고 집단이 있는곳에는 반드시 내가있고 남이있게 마련임을 우리가 알수있다. 이 집단안에 너와 나는 비록 서로 그 얼굴은 모른다고해도 그 누구를 물론하고 직접 간접으로 그 생을 위해 상호보존의 관계 즉 사회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인간의 이 사회성은 인간차별의 관계에서는 이루어지지않는다. 이루어진다고해도 서로의 생을 최소한도로 유지할수 있는 정도를 넘어설수없고 이런관계가 좀더 악화되면 상호투쟁이 생긴다. 인간의 인간차별은 인간의 사회성을 파괴한다.

2. 이런 반사회성이 과거에는 교육의 사회적 편제로 인해 소위 소수 유식층(특권 계급)이 절대다수인 무식층을 자기들의 과잉자유(죄악)와 사치를 위해 억압착취하는 불평등과 구속을 강행함으로써 오랜 세월동안 인간의 사회성을 저해하고 파괴하는 비극을 계속해 왔다. 우리가 세계사에서보는 계급과 계급간의 증종의 투쟁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났던 그 수다한 전쟁들이다. 인간차별에서 원인했음을 역사가 명백히 우리에게 증언 해주고 있다. 유사이후 여러천년을 두고 이같은 천신만고의 슬픈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다시 또 세계 입이 차 대전이라는 인류유사이후 최대의 비극 즉 인류의 사회성 파괴라는 큰 비극을 치르고 비로소 민주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의 보급 지식의 발달을 가질수 있는 동시 자유평등과 세계평화를 우리 인간생활의 신조로 하고 살게됐다. 우리는 이 자유평등(민주주의)과 세계평화를 우리 서로 생활에 구현하기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발달과 더불어 성장해오는 인간의 이기성은 인간의 사회성을 파괴하고 계층과 계층간의 투쟁국가와 국가간의 전쟁을 도발하여 그칠날이 없이 계속되어 가고 있다.

과거의 개인주의는 주로 유식 무식으로 인한 인간차별을 했었지만은 지금 소위 자유평등시절에 있어 인간차별은 돈의 유무와 강약의 차이로서 이루어 졌다. 이 실에로는 자본가와 근로자와의 투쟁,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대립, 빈부와 유식, 무식의 차별, 사회적지위쟁탈을 위한 본쟁, 강약의 대립, 정처가의 반민주성, 사상의 충돌 국가대 국가의 전쟁을 들수있다. 인간차별의 현상이 가정안에 생기면 가정이 본립하고 사회안에 생기면 사회가 본립하고 나라안에 생기면 나라가 본립하고 세계안에 생기면 세계가 본립한다. 본립은 곧 상호 증오와 항쟁을 의미하고 항쟁은 곧 파괴와 살육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가정이 편안하려면, 한사회가 편안하려면, 한나라가 편안하려면, 한세계가 편안하려면, 인간 차별이 없어야한다.

인간차별이 계속되는한 이 세상에는 언제나 대립과 투쟁과 전쟁의 생지옥이 계속되어 갈것이다. 하느님이 계심도 인간을 창조하심도 인간에게 이성과 덕성을 부여하심도 인간으로하여금 법률을 제정하심도 인간부차별 즉 인간의 사회성(하느님으로 보시면다 똑같은 자니)을 발휘하여 인간이 의논하고 양보하고 타협해서 서로도움으로서 평화로이 살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여기 미국사람들도 인간 무차별-사랑의 정신에 의해 그들이 고생해서 건설한 자기를 나락에 우리들을 받아들여 우리들에게도 기회권등과 대우의 평등을 주어 우리로하여금 미국에서의 우리생활 가능케 할수 있도록 너그러운대접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조국을 멀리떠나 미국까지 살려온 우리가 결국 따지고 보면 영고성쇠와 생사에 별 큰 영향도 있을수 없는 작은일, 일시적 영토에 양심을 빼앗겨 서로가 절대로 가져서는 안될 차별관념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미워하고 항쟁해서 비단 우리사회만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에게 생활기지를 제공해주고 있는 미국인 사회에까지 불안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는 우리의 수처일본 아니라 이는 우리가 스스로 미국 사회에대해서 차별대우를 청하는 결과가 되는 동시에 우리들 후손에게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것은 필연의 일이다.

이런 불미한 사실을 저질러 자파의 지탄을 받는다는 일은 물론 잘살려 온다고 미국까지 살려온 우리본의도 아니다.

우리의 일제 36년간의 민족적 수난 역시 안과 밖으로서의 인간차별이 가져온 우리의 입대불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앞으로의 우리생활은 모조로 민족을 위해 서로의논하고 양보하고 타협해서 인화를 향상발전시켜 가도록 성의를 다해야할것이다.

인간간사-종교, 예술, 학문, 기술, 장사, 무역 등등-은 다 인간 생활을 다행하게 하기위해 인간이 창조해낸것이지 결코 인간을 불행케 하기위해 인간이 창조해낸것은 아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인간차별로부터 오고 인간의 모든 행복은 다 인간의 무차별로부터 온다.

우리는 자랑스런 홍익인간이화세계의 우리건국정신을 우리생활 신조로해서 소미(小美)를 버리고 대미(大美)를 취하기 위해, 소이(小異)를 버리고 대동(大同)을 취하기 위해 대항을 버리고 단결을 취하기위해 우리는 우리민족의 민족정신-사랑 상부상조의 덕성-협동정신을 발휘해서 안으로 우리의 충실을 기하는 동시 이 충실한 내부의 단결을 가지고 세계 각 민족으로 형성된 이 미국에서 우 리입장도 도움이 될수 있는 우 리가 다 되어, 우리사회발전과 동포들의 미국이민을 위해 반만 대로를 열어주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것이다.



씨애를 침례교회 정하경목사

오늘 인류는 새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새 시대의 새벽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새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자각하고 또한 어떠한 삶으로 이 새 시대에 대결해야 할것인가? 무엇보다 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정립하고 참다운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캄캄한 암흑의 창문을 뚫고 멀리 내일에 빛나는 별들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새 시대의 삶에는 뚜렷한 일정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를 잘 정하고 목표를 바로 잡고 힘차게 달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을 아무런 희망이나 뚜렷한 목표없이 마치 바람에 밀리는 물결과 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세상바람부는대로 흔들리며 살아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표를 정하기는 정하지만 잘못 정하여 뜻없는 일생을 보내며 어떤 경우에는 크게 불행해 고통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 지위, 전문 기술 등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도움은 되지만 그것들이 삶의 목표자체가 될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류의 최고목표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온 세계의 희망의 별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인류는 불안, 공포, 절망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전 인류가 멸망할것을 뵈어 알면서도 세계의 여러나라들은 그저 핵무기 만드는데 열중하며 서로 경쟁만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런 세상을 바라봐야 이 세상에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때에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희망이 하나님의 역사에 시작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하나님을 우리는 일생의 목표로 삼을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 부터 일생의 목표를 바로 정하고 잘 달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젊어서는 목표를 잘못 정하고 금과 같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다가 뒤늦게 삶의 바른 길을 발견하여 목표를 잘 정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는가하면 어떤

사람은 일생동안 어둡고 캄캄한 길을 해마다가 슬픔과 한숨속에서 불행하게 일생을 마치는 이도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인생행로와 목표를 바로 찾는다는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한다면 그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표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냥 안아서는 목적에 도달할수 없습니다. 그 목표를 잡으려고 전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것은 지나간 과거를 돌아다 보지 말아야 합니다. 곧 과거를 다시 기억하거나 회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의 잘못이나 슬픔, 실패, 불평, 불만 등을 계속 마음에 간직하면 마음에 크게 상처를 입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본만아니라 과거에 성공하던것 과거에 잘살고 행복했던것도 있어 버리는것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의 아름다운 추억에 사로잡혀 살면 오늘이란 현실에서 뒤떨어지기 쉽고 아울러 어떤 작은 불행이나 환난이 닥쳐오면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목표를 찾았으면 전심전력으로 앞을 향하여 쫓아가야 합니다. 새 목표를 정하고 이를 따라가는 데는 비장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속에서도 굳게 다진 그 결심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 목표를 정하고 새 결심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승리 할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번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한번은 이삭이 열 백성을 감람 산상에 도아놓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느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참신 하나님을 택하든지 우상 바알을 택하든지 결단하라)

고 요구 했습니다. 우리가 참다운 새 목표를 정하는 데는 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새 목표를 발견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결단의 생활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떤일을 한번 결심을 하면 새로운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정하기전에는 여러가지 잡념때문에 정력이 분산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새 목표를 위하여 마음에 큰 결단을 내리면 모든 정력이 한군데에 집중되어서 과거에 체험하지 못하던 놀라운 새로운 힘이납니다. 이 모든것을 넉넉히 할수 있는 큰 힘과 용기가 솟아납니다. 어떤 장애나 역경이 닥쳐와도 모든것을 돌파하고 승리 할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습니다.

새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갖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으며 큰 힘과 용기를 얻어 크게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자 : 씨애를 한인 침례교회 담임)



Woong Ki Baik
8512 20th N.E.
Seattle, Wash. 98115
206-525-8334

그랜드 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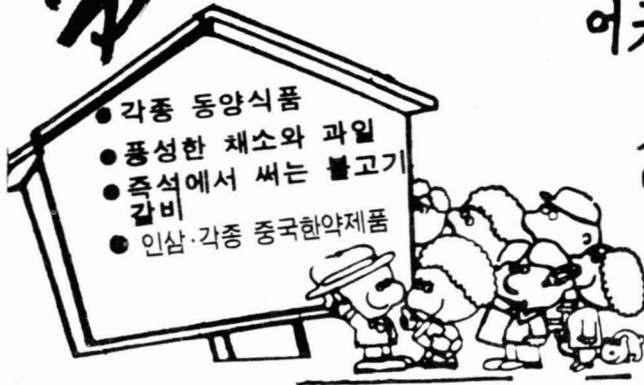
Dan & Jean Kim
5405 196th S.W.
Lynnwood, Wash. 98036
206-771-7226

◈ 저렴한 가격 · 신선한 식품 · 친절한 봉사 ◈



나 날이 발전하는 시애틀 코먼 여러분 속에. 저희 그랜드 식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욱의 맛을 생심껏 전해드려주 있는 최선에 방법을 다 하려고 오늘도 온정성을 다 하려고 하읍니다. 아울러,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 하겠읍니다.

常



감사 하읍니다.
갈비와 불고기는 미리 주문해 주세요.
"단체 주문도 환영 합니다."

인삼코너

情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

HAHN, MAN 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